

**라이트 · 꼬르뷔제 · 미스의 감성적 뮤지엄 공간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motional Space Characteristics of the Museums Designed by Wright, Corbusier, and Mies

서수경* / Suh, Swoo-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zation toward abstracted emotional properties appeared in the museum exhibition spaces designed by the three masters of the modern architecture; Frank Lloyd Wright, Le Corbusier and Mies van der Roh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lso aim to inquire into how the emotional properties have affected the third generation architects. It is especially expected that the 'emotional tendency' emerging in various fields of the present time can serve as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motional design properties appeared in the exhibition space which is directly linked with the human liv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by Wright , <The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in Tokyo by Le Corbusier and <The New National Gallery in Berlin> in Berlin by Mies Van der Rohe were selected. As for the analyzation methodology to be adopted for deriving the aiming points at the emotional design, five criteria of analyzation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the emotional area: they are ① spatial affordance, ② human congeniality, ③ emotional factors of the area, ④ constitution of the area and ⑤ expressive division of the area.

Using these criteria, this study will reveal what are some of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shown in each museums and its analytical result will be useful to apply to future museum design. It is especially expected that the 'emotional tendency' emerging in various fields of the present time can serve as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motional design properties appeared in the exhibition space of design which is directly linked with the human behavior.

키워드 : 라이트, 꼬르뷔제, 미스, 뮤지엄, 전시공간, 감성디자인

Keywords : Wright, Corbusier, Mies, Museum, Exhibition Space, Emotional Design

1. 서론

뮤지엄¹⁾은 이제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넘쳐나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정신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중요시 되고 있다. 고전적인 의미의 뮤지엄, 즉 수집품을 수납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상설기관으로서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모더니즘 시기의 뮤지엄의 활성화에 보탬이 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²⁾ (Smithsonian Institution) 설립이후 전 세계의 뮤지엄 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국가가 뮤지엄 지원에 협조하거나 세계대전 이후재벌들의 막대한 기부금으로 뮤지엄을 지원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사회교육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적 맥락으로 볼 때 뮤지엄의 조형적 개념에 있어서 다른 건축과의 연계보다는 기념비적인 독립형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은 주변의 상자 형 건축과 대비되는 조형물로 완공된 시기부터 현시점까지 랜드마크 역할은 물론 현재에도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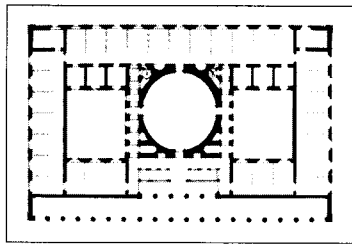
* 정희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1) 뮤지엄(museum)이란 역사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폭넓게 포용한 의미로 사용함.

2) 스미소니언은 영국인 스미슨 (James Smithson)이 1846년 당시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의 유산으로 설립된 문화재단

<그림 1>에서와 같이 불레(Etienne Louis Boulee)의 초기 뮤지엄 디자인 제안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 이전에는 전시공간의 구성이 대부분 로툰다³⁾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었다. 그러나 모더니즘 시기에는 메이저 스페이스⁴⁾라는 중심성을 갖는 동시에 오픈플랜⁵⁾으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그림 1> 고전방식의 뮤지엄

시기에는 고전적 조형형식을 벗어나 절충적 단계인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⁶⁾

본 연구는 현대건축 여명기로부터 성숙기까지 초기 현대 건축을 이끌어온 3대 건축거장(巨匠)인 프랭크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 이하 라이트로 표기),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 이하 꼬르뷔제로 표기), 그리고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1886-1969, 이하 미스로 표기)의 대표적 작품형식의 하나인 뮤지엄 전시공간에 대한 감성적 경향 분석이다. 이들의 전시공간에 영향을 준 감성적 디자인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고, 감성적 공간 특성과 제3세대 건축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대두되는 ‘감성적 경향’을 인간의 삶과 가장 직결된 디자인, 그 중에서도 전시공간디자인에 나타난 감성적 디자인 특성분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이후 뮤지엄 디자인분야에 유용한 정보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성적 접근의 필요성과 분석기준(틀)을 설정하여 현대건축의 3대 거장의 대표적 뮤지엄작품인 라이트의 구겐하임 뮤지엄, 꼬르뷔제의 동경국립서양미술관, 그리고 미스의 베를린 국립미술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뮤지엄의 감성적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⁷⁾의 분석기준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작품의 ①공간의 지원성 / 인간 친화성 ②공간의 감각요소 ③공간의 상징성 ④공간의 구성 ⑤공간의 표현적 구분의 다섯 가지 분석기준(틀)에 의해 감성디자인에 대한 착안점을 도출시키려고 한다.

3)로툰다(rotunda)란 고대건축에서 원형의 홀에 원형돔(dome)을 씌운 중심홀
4)메이저 스페이스(major space)란 중정이나 중심이 되는 주요 공간 또는 대공간
5)오픈플랜(open plan)이란 미스가 즐겨 쓰는 개방된 공간
6)서수경, 뮤지엄의 감성적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논, 2006, p.77
7)서수경, 앞의 논문, 2006, pp.41-50

2. 감성적 접근의 필요성과 분석기준(틀)

2.1. 감성의 정의

감성(感性)이란 심리적으로 자극 또는 자극의 변화에 대하여 감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고, 철학적으로는 오성(悟性)과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독립적 표상능력으로,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어 표상을 얻게 되는 수동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인간 내부에 야기되는 심리적 체험으로 ‘쾌적감·고급스러움, 불쾌감·불편스러움’ 등의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 된다⁸⁾.

2.2. 감성적 접근의 필요성

이원론적이며 절대적인 유클리드적 구조가 지배적이던 서양의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최근의 과학과 기술의 패러다임은 상대적이고 불확정적인 비유클리드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인식의 전환은 다양한 감성적 경향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인간의 주생활을 지배하는 공간은 사물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인식되며, 이것은 공간을 체험할 때 공간을 개별적인 요소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힘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간과 감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가치기준을 이성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이 아닌 사고인식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와 비물질적 존재에서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현황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성화 된 감성디자인은 특히 문화체험과 교육 등 다양한 기능과 형식을 갖춘 뮤지엄 공간 설계방법론에 적용되는 것을 위하여 뮤지엄 전시공간의 ‘감성적 경향’에 대한 접근은 필요한 시점이다.

2.3. 감성적 접근에 의한 전시공간 분석기준(틀)

앞서 열거한 것처럼, 후기 모더니즘으로 변환하는 시점에서 공간이나 공간구조를 인지하는 방법으로 공간의 가치를 이성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이 아닌 인식의 주체를 인간에 두고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미지’와 ‘비물질적 존재’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기준(틀)은 건축과 관련된 철학의 흐름을 근거로 하고, 전시공간의 감성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준(틀)로 설정되었다.

- ① 공간의 인간친화성 / 지원성(affordance)
 -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개념
 - 인간 중심의 감성디자인으로 접근 했는지 여부

8)서수경, 앞의 논문, 2006, p.21

- ② 공간의 감각(sensation) 요소
 -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인들
 - 오감에 속하는 형태, 질감, 명암, 색깔, 채광 등
 - ③ 공간의 상징성(symbol)
 - 전시공간을 이룬 구조미
 - 대표적 감성공간의 상징성
 - ④ 공간의 구성 / 위계, 동선, 설화적 접근(narrative)
 -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
 - 공간유형, 가변성, 동선체계 등
 - ⑤ 공간의 표현적 구분 / 사실적 또는 추상적 표현
 - 공간의 이해가 용이한 경우와 난해한 경우의 파악
 - 사실적 스케일에서 탈피한 추상적 공간표현 여부
- 분석에 포함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분석 기준과 세부내용

분석 항목	세부 분석항목	분석 내용
공간의 지원성/ 인간 친화성	공간의 친숙한 정도	물리적 공간의 지원성 여부, 환경정보의 상호 교류, 시간성 등
	안정감·쾌적성	친밀도, 공간기능의 명확성, 기능적 요구해결 등
공간의 감각요소	물성/재료의 질감	다양한 마감재료 및 표현방법, 재질 등
	채광형식	자연광 유입방식, 인공조명연출 등
공간의 상징성	오감영향 요소	색채계획, 시청각 및 후각정보 등
	대표적인 감성공간	메이저 스페이스를 포함한 공간의 유형특성, 미적 공간, 장식적 요소 등
공간의 구성	공간 구조미	독창적 구조, 상징 구조물, 공간의 볼륨과 모듈 등
	공간유형	공간의 유형별 연계성, 공간의 위계, 공간의 표현방법(서술적, 설화적) 등
	가변성	공간의 가변성 여부
공간의 표현적 구분	동선체계	관람동선 형식(선택적, 순차적, 강제동선 등)
	공간의 형태, 스케일	디자인 모티브, 디자인 성향, 조형성 등
	사실적·추상적 표현	공간형태에 대한 해석, 표현방식 등

3. 3대 건축거장의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특성 분석

3.1. 라이트의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 전시공간 특성

라이트는 자연과 친화(親和)적이면서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⁹⁾을 비롯한 많은 건축원리를 정립하였고, 자연에서 유추된 형태를 건축디자인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이러한 그의 이념이 그의 작품을 감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라이트의 건축은 1893년 독자적인 작업의 시작부터 자연관·유기성·중서부의 프래리(Midwestern Prairie)¹⁰⁾·모더니즘 그리고 감성적 건축을 통한 미국의 정체성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의 공간 유형 특성은 전체 층이 개방된 중앙의 메이저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주변의 전시 공간이 연속

9)유기적 건축 : 라이트의 건축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신중히 설계되어 본질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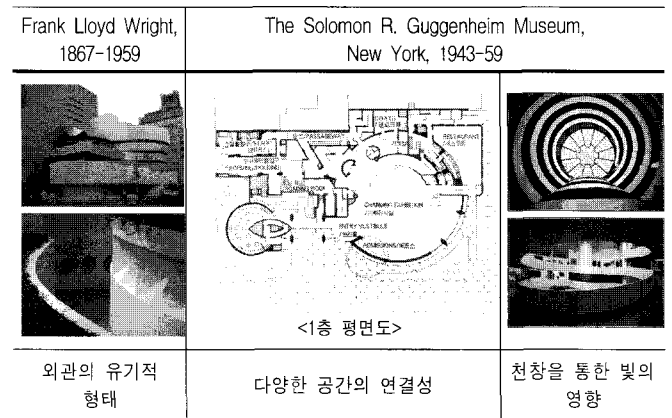
10)프래리 : 북아메리카 대륙 중앙부에 위치한 대초원을 의미하며, 중서부의 프래리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된 나선형 형태를 갖고 있다. 경사진 전시 공간 전체가 개방된 연속적 공간이고, 증축된 부분도 개방적인 공간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신간과 구관으로 나뉘어 상설과 기획전시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본 뮤지엄의 메이저 스페이스는 스프링과 같이 위로 솟아오른 일체된 구조에 캔틸레버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중앙의 오픈 스페이스가 생동감을 준다.

중앙의 메이저 스페이스의 천창에서 도입된 자연광은 마치 판테온(Pantheon)신전의 장엄한 빛의 효과를 준다. 램프를 통해 6개 층 전체 동선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관람을 원활히 하며 이러한 개방적인 공간은 관람객에게 쾌적함은 물론 풍성한 볼륨감을 주게 된다.

(1) 라이트의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특성분석

그의 유기적 건축개념과 토탈디자인 개념은 자연에서 그 모티브를 삼았으며 이러한 형태는 공간의 성격과 연관된 개성적인 것으로 감성적 경향을 띄는 현대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구겐하임 뮤지엄의 감성적 경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림 2> 라이트의 구겐하임 뮤지엄

1) 공간의 인간친화성

유기적¹¹⁾ 건축형태의 외관이 내부공간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며, 특히 천창을 통하여 중심공간에 유입된 자연광이 시시각각으로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유기적 형태의 외관이 내부의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느껴지고,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의 인입은 시시각각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얀색으로 도색된 벽체에 비쳐지는 천창 구조들의 그림자는 시간의 변화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전시공간 전체가 열린 메이저 스페이스는 내부의 소리를 반사시키지만 공간의 볼륨으로 인하여 절대로 소란하지 않다. 열

11)유기적(有機的) : 자연적이며 생물적인 것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각 부분이 서로 완전히 구분될 수 없는 사상이나 사물의 종합적인 파악을 의미한다.

린 공간의 램프에서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 교차되면서 공간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램프는 다양한 시각적 감성을 자극하며 각자의 체험의 시간을 조절하고 전시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공간을 친화적으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공간의 감각요소

나선형 중심공간이 감성적 이미지와 생동감을 주며, 대공간의 천창으로부터 유입된 자연광이 전관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본래는 외벽 측창에서 자연광이 유입되었으나 역광으로 인한 전시감상 때문에 문제되어 리모델링하면서 폐쇄시켰다. 건축구조를 위한 콘크리트 마감위에 단조로운 도색이 일체감을 이루면서 마치 판테온(Pantheon) 신전의 장엄한 빛의 효과에서 얻어지는 감성을 느끼게 한다.

3) 공간의 상징성

대표적 감성공간은 역시 중심성을 가진 대공간으로 6개 층이 개방되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1층부터 6층까지 이어진 램프(ramp : 경사로)의 폭은 6-8m로 상부 폭이 넓고 하부로 내려 갈수록 점차로 좁아진다. 램프의 경사각도는 3%로 그림을 진열하는 방법에 다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전시벽이 곡면이어서 긴 작품진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관증축으로 해결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설전시와 기획 전시가 구분되지만 이 뮤지엄은 혼합된 경우이다.

4) 공간의 구성

성장형 전시공간의 동선체계는 교차 없이 연속된 형식이다. 뮤지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동선의 문제와 채광형식이 모두 만족된 작품으로 현대뮤지엄 건축의 효시가 되고 있다. 전시공간의 체험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최하층에는 작은 연못이 종착지임을 암시해주는 특별한 배려가 인상적이다.

5) 공간의 표현적 구분

스프링과도 흡사하고, 달팽이 속과 같은 대공간은 방문객의 오랜 기억 속에 남는 매우 인상 깊은 공간이다. 강한 중심성을 가진 나선형의 연속성은 꼬르뷔제의 '성장하는 뮤지엄 개념'과도 일맥상통되는 수법이고, 형태적으로도 주변 건축에 비해 탈도시적이고도 탈 역사적 공간구성으로 사실적 스케일에서 벗어난 추상적 공간 표현이다.

3.2. 꼬르뷔제의 동경 국립서양미술관 전시공간 특성

꼬르뷔제는 건축공간구성원리 중 "공간은 무한하며, 어떤 구속도 없이 사방으로 뻗어 나아가야 한다."인데, 그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무한으로 성장하는 뮤지엄계획'이라는 개념을 세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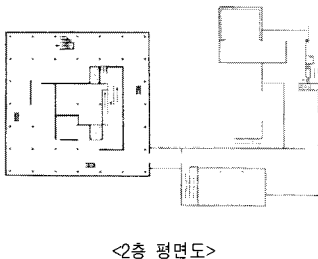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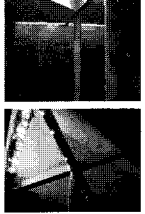
이러한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실현된 작품의 특성은 3차원적인 나선형구조와 정방형의 지구라트¹²⁾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중심성을 가지면서 무한정으로 확장 가능한 점이다. 그가 취한

나선형은 그가 성장한 라쇼드폰에서 이미 탐구된 것으로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을 나타내는 자연에서 발견된 패턴으로 나선형은 하나의 점에서부터 성장하는 질서를 의미한다.

무제한으로 성장하는 미술관의 최초 아이디어는 1930년 12월 8일자 제르보(Christian Zervos)에게 보낸 편지내용에서 시작된다.¹³⁾ 기본개념은 ①정방형의 건물이 피로티(Piloti)에 의해 지탱되고, 건물은 지면에서 최소한의 구조체만 있을 뿐 진입동선이 사방에서 자유롭게 중정으로 도달하게 된다. ② 중정의 램프를 통해 전시층에 이어지며, 중앙 홀은 상하층이 오픈되고 자연광이 유입된다. ③ 전시공간은 시계방향으로 동선체계를 가지고 연속되며, 전시 벽은 가동적 패널을 설치하기도 한다.

(1) 꼬르뷔제의 동경 국립서양미술관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특성 분석

꼬르뷔제가 설계한 뮤지엄 3개중 동경의 국립서양미술관의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특성분석은 다음과 같다.

Le Corbusier, 1987-1965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Tokyo, 1957-59	
		
외관에 나타난 단순한 조형	공간의 명확성과 개방성	자연광의 영향과 개방성

<그림 3> 꼬르뷔제의 동경국립서양미술관

1) 공간의 인간 친화성

성장하는 나선형 개념의 중심홀(일명 19세기 홀)이 상부까지 오픈되고 천창으로부터 자연광이 유입되어 전관의 중심을 이룬다. 또한 이 중심 홀은 서로 친숙하게 접속되는 매우 인간 친화적이며, 진출입 부분은 필로티 뒤로 후퇴되어 여유롭다.

메이저 스페이스는 다양한 높이와 넓이로 인간 친화적인 볼륨을 지원하며 장식이 최소화된 내부공간은 자연스러운 내부공간을 느끼게 한다.

중2층과 1층간에 열린 공간에 발코니 부분은 열린 공간으로서 시각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교류는 지원되는 환경정보에 의해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12)지구라트(Ziggurat)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전과 같이 높은 피라미드형의 탑으로 경사를 이용하여 연속되는 성스러운 탑을 의미한다.

13)Stanislaus van Moos/ 최창길 외 역, 르 꼬르뷔제의 생애, 기문당, 1995, p.137

2) 공간의 감각요소

무창의 외부마감이 콘크리트를 박은 P.C공법(precast concrete) 판넬로 다소 거친 감이 있으나 내부 마감은 매끄러운 콘크리트 질감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채광형식은 중심부와 전시장 상부가 모두 천창으로부터 유입되는 자연광으로 인해 전관이 밝은 인상이다. 특히 중심부의 삼각형 모양의 천창으로부터 역동적인 빛이 유입되어 생동감 있는 공간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¹⁴⁾

3) 공간의 상징성

중심홀이 대표적 감성공간으로 전관에서 인지되고, 그 둘레의 나선형으로 성장한 전시공간은 벽체의 배열이나 층이층구성으로 천창고의 변화가 있으면서 공간의 구조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공간의 연속과 막힘의 미묘한 변화로 감성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2층 전시공간은 개방된 메이저스페이스 둘레를 나선형 전시공간이 에워싸고 4개로 구획된 각 공간은 중앙 홀과의 연계, 벽체의 배열, 층이층으로 인한 천창고의 차이, 그리고 공간의 연결과 막힘의 변화로 미묘한 감성변화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감성공간으로 중심홀은 2개 층이 개방(높이 8.9m)되어 있고, 삼각형 모양의 천창으로부터 유입되는 역동적인 자연광은 공간에 생동감을 넣어 준다.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피로티 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건물을 지반에서 들어 올린 형태로 외벽의 둔탁한 매스를 가벼운 느낌이 들도록 처리하면서 벽을 구조에서 해방시켰으며 평면은 자유로운 구획이 가능함을 상징한다.

4) 공간의 구성

중심성을 가진 '성장하는 개념'의 전시공간이 팔랑개비처럼 연속성을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서 동선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연속된다. 전시공간은 전체가 개방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공간의 구획이 가능한 가변적 구조가 특성이다. 상설전시공간과 기획전시공간은 후에 증축된 신관 때문에 동별로 구분된다.

5) 공간의 표현적 구분

무한으로 성장하는 전시공간구성 원리에 따라 중심성 있는 정방형 공간을 완결시켰다. 이 작품은 도미노(Dom-ino) 구조시스템¹⁵⁾을 적용한 조소적이고도 회화적인 표현의 대표적 작품이기도 하다.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는 역시 제3세대 건축가인 마이어가 그 대표적이다.

3.3. 미스의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전시공간 특성

미스가 구축한 건축이념은 크게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철과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단순미와 절제미를 나타내는 미스경향(Misesian)의 고층건축 스타일이다. 결국 미스의 작품 특성은 하나로 개방된 공간구성과 재료 선택에 있어서 명료하고 간결함에 있다.

본 뮤지엄의 공간 유형 특성은 중심성 없이 전체가 개방된 우주공간인 유니버설 스페이스형이다.

전시공간은 전체가 개방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구획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고, 상설과 기획전시공간은 상하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메이저 스페이스는 존재 하나, 특별한 중심성이 없는 우주공간 개념을 활용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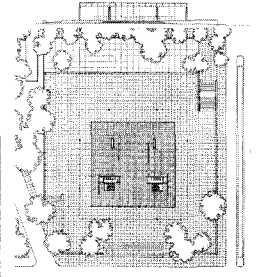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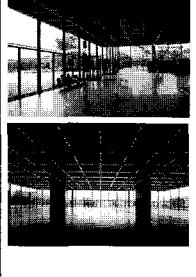
개방된 외곽의 유리창은 외부풍광이 전시의 배경으로 보이게 됨으로서 특별한 감성적 공간분위기를 조성하며, 외부에 놓인 조각은 철과 유리로 마감된 박스 형태의 건축과 대비를 이루며 더욱 볼륨 있게 연출하였다.

자유선택형 동선형식을 갖는 이 뮤지엄은 그의 조국에 설계된 신 국립미술관(The New National Gallery, Berlin, 1962-68)은 65m×65m의 정방형 지붕이 한 변에 두개씩 배치된 기둥에 의해 지지된 구조를 우주공간개념을 다시 한번 잘 표현 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결국 그의 개성적인 공간개념을 1930년대 두개의 전원주택 계획안으로부터 시작되어 1950년대 판스워스 하우스(Farnsworth House)와 크라운 홀(Crown Hall)설계에서 우주공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였고, 재료 면에 있어서 철과 유리를 사용하여 일관된 그의 건축적 철학을 구축하였다.

(1) 미스의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특성 분석

미스의 베를린 신 국립 뮤지엄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특성분석은 다음과 같다.

Mies van der Rohe, 1886-1969	The New National Gallery, Berlin, Germany, 1962-68	
		
단순미로 인한 외곽의 장엄함	무한한 가능성의 오픈플랜	자유동선을 유도한 개방적인 내부

<그림 4> 미스의 베를린 신국립현대미술관

1) 공간의 인간 친화성

신교전주의 양식과도 같은 8개의 독립된 지주가 노출된 구조

14)김도식 외, Le Corbusier-건축작품 읽기, 기문당, 1999, pp.314-334
 15)김도식 외, 앞의 책, p.48/동-이노 구조는 포르뮌체 건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의 건축들에 적용된 다양한 조형적, 공간적 원칙들을 담아낼 수 있었다.

로 기단위에 올려져 있다. 라이트나 꼬르뷔제의 작품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중심성이 없는 정방형의 무주공간¹⁶⁾으로 조형된 단순한 구조미를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무채색의 공간분위기와 철과 석재 그리고 유리에서 느끼는 비인간적 감성이 다소 산업적으로 느끼게 한다. 사방으로 개방된 전면 유리벽을 통하여 외부까지 연장된 공간구성은 쾌적성은 있으나 개방된 공간 속에서 다소 지원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 공간의 감각

종래 무창의 뮤지엄 개념에서 벗어나 전면 개방된 유리벽을 통하여 시야의 개방이나 자연광 유입으로 전관이 맑고 밝게 연출되며, 직사광선의 조절을 위해 측창에는 특수 회색 커튼이 준비되어 있다.

3) 공간의 상징성

높은 천장고(8.4m)를 가진 개방된 유니버설 스페이스¹⁷⁾ 구성 형식은 다양한 전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처마 끝에서 유리벽을 안으로 후퇴시켰지만 공간의 크기는 외부까지 연장되며, 측창의 전면 개방으로 외부의 풍광이 전시품의 배경 역할을 하는 특수한 분위기이다.

중심성이 없이 전체가 개방된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관람동선은 자유 선택적이다. 상설전시공간과 기획전시공간은 상하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순한 사각형태의 내부 공간은 전시형식에 따라 다양한 가벽 체를 설치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공간의 상징성 역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한다.

4) 공간의 구성

주 전시공간을 이루는 지상층은 실내외의 천장과 바닥이 동일한 레벨로 처리되어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의미한다. 지하층의 성설전시를 위한 전시공간은 대·소의 공간으로 구획되었다. 관람동선은 무주공간의 특성에 따라 자유스러우며, 선택적 동선관람이 가능하다.

5) 공간의 표현적 구분

그의 대표작인 바르셀로나의 만국박람회 독일관(Barcelona Pavilion), 전원주택인 판스웰스(Farnsworth House),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교의 크라운 홀(Crown Hall) 등 모든 작품에서 개방된 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시스템(철구조와 유리벽)을 선택한 미스는 명쾌한 논리를 통하여 고대 파르테논신전과 같이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구조미를 자랑하는 건축물을 계획한 것은 물론 탈구조적 무주공간의 추상성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3.4. 분석종합

지금까지 분석된 세 작품의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경향 특성 종합은 다음과 같다. 분석된 3개의 작품은 비교적 장식이 배제되고 조형성과 구조미가 부각된 디자인이 특징으로 보이며, 특히 공간의 지원성에 있어서 라이트의 작품에서는 연속적인 나선형의 공간에서 개방감을 느끼고 꼬르뷔제의 작품에서는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 것을 통해 인간 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느껴진 반면 미스의 작품에서는 무주공간개념에 의하여 넓게 개방된 공간 안에서 내외부가 동시에 보이는 시각적 쾌적함은 있으나 인간이 공간 내에서 누리고자 하는 지원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나타났다.

공간 내에서 감각에 가장 큰 영향 주는 요소로서 빛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천창에서 수직적으로 퍼지는 자연채광은 관람객에게 장엄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또한 자연스러운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서 공간 내 자연스러움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미스의 작품에서 철과 유리로 인한 산업적인 느낌이 강하여 라이트와 꼬르뷔제 두 개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유기적인 감성은 다소 희석되었다.

공간의 상징성이 물리적으로 보여 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3개의 작품에서는 메이저 스페이스를 통하여 그 의미 전달이 확실하며 공간의 구조미가 상징적으로 보여 지고 관람자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한다.

본 연구에서 공간의 구성은 연계성 또는 시퀀스(sequence)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분석에서 다루어진 작품들 모두 가변성이 뛰어나 연속적이고 자유로운 관람동선을 만들 수 있어서 각자의 관람에서 얻어지는 체험이 풍부할 수 있었다.

공간의 표현에 있어서 라이트와 꼬르뷔제의 작품에서는 의외로 추상적인 표현이 다수 보였고, 미스의 작품은 단순 명료함으로서 사실적 표현을 찾을 수 있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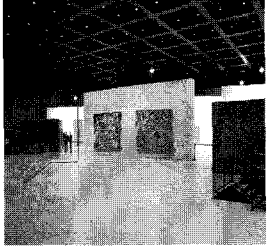
라이트와 꼬르뷔제 그리고 미스는 모두 정규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수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건축가들에게 명확한 건축철학과 작품을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뮤지엄 건축에 있어서 다소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근대뮤지엄의 형태나 전시기능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융통성을 내포하는 새로운 뮤지엄의 공간 구성특성을 제시하였고 이점 역시 후기 모더니즘 이후의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라이트와 꼬르뷔제는 근대 뮤지엄의 원형인 좌우 대칭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개념의 뮤지엄을 개발하며 중심성을 갖고 연

16)무주공간 : 공간 내부에 구조가 되는 기둥이 없는 Column-free Space 로 어떤 구획도 가능하며, 전시공간으로서는 어떤 전시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17)유니버설 스페이스(Universal Space) : 전시공간을 하나로 개방시켜 상호 연계된 개념으로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무한정 확장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표 2> 라이트·포르뤼제·미스의 뮤지엄 전시공간에 나타난 감성적 경향특성 종합

분석항목 및 세부 분석항목	Frank Lloyd Wright, 1867-1959	Le Corbusier, 1887-1965	Mies van der Rohe, 1886-1969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Y, 1943-59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Tokyo, 1957-59	The National Gallery, Berlin, 1962-68
			
□ 공간의 지원성 / 인간 친화성			
· 공간의 친숙한 정도	연속성과 나선형으로 개방되어 인간 친화적	시각적 정보교류에 의한 인간 친화적	전체가 개방된 무주공간으로 지원성 부족
· 안정감·쾌적성	시각적/심리적 안정감	안정감	트인 시야로 쾌적함
□ 공간의 감각요소			
· 물질/재료 질감	콘크리트의 유기적 형태 제조 가능성 표시	무창의 외벽에 공자갈 붙인 패널	철과 유리의 가능성 표시
· 채광형식	중심부 천창과 측창	천창	측벽 전체-유리로 개방
· 오감영향 요소	전반적인 환색조 내부 랜딩부분의 연못 자연채광 시각과 소리의 퍼짐	나무색, 흰색 및 회색 시각의 교차 소리의 반사	노출 재료 자체의 색조 산업화재료의 건조함
□ 공간의 의미 혹은 상징성			
· 대표적인 감성공간	중양의 원형으로 개방된 메이저 스페이스	성장하는 개념의 전시공간과 상층이 개방된 중심부	전체가 개방된 유니버설 스페이스
· 공간 구조미	연속된 나선형의 대공간	상하개방된 공간과 램프	내외부 연계되는 구조물
□ 공간의 위계 / 움직임, 설화적			
· 공간유형	중심성 있는 성장형	중심성 있는 성장형	중심성 없는 개방형
· 가변성	전체가 개방적	전체가 개방적	가변적이어서 어떤 전시도 수용가능
· 동선체계	연속적인 관람동선	연속적인 관람동선	자유선택적 관람동선
□ 공간의 추상성			
· 공간의 형태	조개껍질을 모티브로 한 탈도시적 형태	도미노 구조와 성장하는 뮤지엄 개념 형태	탈구조적 유니버설 스페이스의 개방된 형태
· 사실적·추상적	탈도시적, 반(反)역사적인 공간구성으로 추상적	성장하는 개념의 추상적 표현	개방적인 추상성 과시, 투명성

속된 감성적 전시공간을 계획하였다. 미스는 무주공간에 의한 오픈플랜형식의 새로운 경향을 뮤지엄 전시공간에도 창출하여 쾌적함과 무한함을 추구하였다. 특히 라이트는 포르뤼제나 미스에 비해 한세대 앞선 건축가로서 뮤지엄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유기적인 개념을 통해 획기적인 획을 그은 건축가로 남아있다.

3대 건축거장의 뮤지엄 전시공간디자인에 나타난 감성적 경향을 공간의 인간 친화성, 감각, 상징성, 구성, 그리고 표현적 구분의 다섯 가지 분석기준(틀)에 의한 비교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시공간에 반영될 수 있는 몇 가지 착안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공간의 지원성, 즉 인간친화성을 위해 상부가 개방된 중심성 있는 대공간을 형성하고, 천창으로부터 자연광을 유입하여 전관을 안정되고 쾌적하게 구성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2) 공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 공간디자인을 위하여 공간의 형태는 물론, 물성의 질감과 색상을 고려해야하고, 채광형

식에 따라 감성적 공간연출이 중요하다.

(3) 공간의 상징적 의미 또는 조형적인 측면에서 상부가 개방된 중심성 있는 대표적 공간 구성이 바람직하다.

(4) 공간의 연계성, 설화적 접근을 위한 개방적 공간에 가변성을 고려하고, 동선체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선택적 관람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5) 공간의 조형적 표현문제를 위하여 사실적 스케일에서 벗어난 추상적 공간표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대건축의 거장으로서 그리고 뮤지엄 디자인에 큰 영향을 준 라이트, 포르뤼제, 그리고 미스의 작품들은 이후 많은 건축가와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서 다루어진 3개의 뮤지엄들은 현대의 뮤지엄 디자인에 직·간접 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몇가지 대표적인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스의 개방적 공간(free space 또는 universal space) 구성 개념은 제2세대 대표 건축가인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74)의 미국 휴스턴에 있는 김벨 뮤지엄(Kimbell Art

Museum, Fort Worth, Texas, 1967-72) 작품에 영향을 주었고, 그의 디자인 경향은 제3세대 건축가인 렌조 피아노(Renzo Piano, 1937-)의 메닐 컬렉션 앤드 뮤지엄(Meil Collection & Museum, Houston, Texas, 1981-87)이나 스위스 바젤 인접 지역에 위치한 바이엘라재단 뮤지엄(Beyeler Foundation Museum, Basel, Switzerland, 1993-97) 작품까지 이어지면서 전시공간을 자유롭게 개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2) 라이트와 꼬르뷔제의 중심성이 있는 가운데 연속적인 전시 공간은 제2세대를 대표하는 건축가 아이 엠 페이 (IM Pei, 1917-)를 통하여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그가 설계한 와싱턴 국립 미술관 동관(National Gallery of Art, East Building, Washington D.C 1968-78)작품에 이러한 영향을 보인다. 제3세대의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 1934-)의 하이뮤지엄(High Museum, Atlanta, GA, 1980-83)과 같은 작품은 라이트의 메이저 스페이스 개념과 매우 유사하고, 꼬르뷔제의 곡면이나 경사로처리는 물론 공간의 연속성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3) 그 밖에 서트(Josep Lluís Sert, 1902-1983)의 미로뮤지엄(Miro Foundation & Center, Barcelona, 1975), 마리오 보타(Mario Botta, 1943-)의 샌프란시스코 현대뮤지엄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1990-95),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 1929-)의 구겐하임 뮤지엄 빌바오(Guggenheim Museum, Bilbao, 1991-97) 등의 작품이 제1세대 거장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모더니즘 시기의 뮤지엄 디자인에 나타난 감성적 경향 특성 분석 결과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주는 새로운 기능의 뮤지엄 디자인분야에 유용한 기초 정보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며, 또한 3인의 거장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김도식 외, Le Corbusier-건축작품 읽기, 기문당, 1999
2. 김미지자, 디자인과 감성공학, poar 04:05
3. 김종성, 현대건축의 거장들-미스의 건축세계, 현대미술관회 편, 1988
4. 서수경, 뮤지엄의 감성적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6
5. 오영근, 건축감성디자인의 언어, 시공문화사, 2002
6. 오영근, 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적경향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3호, 2004
7. 이영화, 감성공간사, 불란서문화원, 2003
8.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9. Petter Blake, The Master Builders, Norton, 1976
10. Bruce Brooks Pfeiffer, FRANK LLOYD WRIGHT, Taschen, 1991

<접수 : 2007. 10. 31>